

네팔, 내전은 잠정 휴전상태로

국별조사실

- 네팔은 현재 중국의 마오쩌둥(毛澤東)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Maoist들과 1996년부터 내전중임. 초기 6개 지역에서 시작된 내전은 현재 전지역으로 확대된 상태이며, 이러한 Maoist들과 정부군과의 유혈충돌로 지금까지 약 7,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.

□ 정부군의 휴전 요청을 Maoist측이 수락

- 지난 1월 29일, Maoist측은 정부군이 제안한 휴전협정 체결과 평화협상 진행을 예상외로 수락함.
- 이전까지의 휴전협정 체결은 주로 7월경부터 10월경까지의 몬순기 후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지금과 같은 시기의 휴전협정 체결은 처음임.
 - 이는 多濕多雨한 몬순기후시기가 전쟁을 치르기에 적절치 않아 양측간의 휴전협정 체결이 비교적 수월하였기 때문인데, 이번과 같은 건조기후 시기의 휴전협정 체결은 매우 이례적임.

□ 상황은 정부군에게 점차 유리하게 전개

- 최근 장기간 내전으로 인해 Maoist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잇달은 미국의 정부군 지원책 발표로 Maoist들의 여건은 악화되고 있음.

- 최근 미국은 M16 3,000여정과 49명의 특전사 파견을 승인하였으며, Maoist들을 테러리스트 명단에 기재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- 그러나 정부군측에서도 Gynendra 국왕의 정치적 기반이 불확실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저조한 상태여서 우선은 휴전 협정을 통해 시간을 벌며 Maoist 진압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모색중인 것으로 보인다.
- 2001년 6월, 9명의 왕족일가가 사망한 사건이후 왕위를 계승한 Gynendra 국왕은 잇달은 의회해산, 비상계엄령 선포 등으로 아직 정치적 기반이 정립되지 않았으며, 국민들로부터는 왕위등극을 위하여 왕족피살 사건의 배후를 조정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.
- 본 휴전협정으로 내전 종식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군측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군측의 행보가 주목됨.

전문 연구원 류재욱 (☎3779-6678)
E-mail : jaeukkor@koreaexim.go.kr